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덕암세미나실 : 지도 위의 ◯ 에 위치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이용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이용

* 덕암세미나실은 3호선 동대입구역이 더 가깝습니다.

버스

방향	노선번호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초록색): 7212 간선버스(파란색): 144, 301, 420, 407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초록색): 7011 간선버스(파란색): 104, 105, 140, 463, 421, 507, 604

제2회 한국고대사학회 · 중국고중세사학회 연합 학술회의

동아시아 속의 古代 遼東

◆ 일시: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10:00~18:00

◆ 장소: 동국대학교(서울)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주최: 중국고중세사학회 · 한국고대사학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모시는 글

한국고대사학회와 중국고중세사학회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고대 요동(만주)의 역사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 이래 한국인들의 뇌리 속에 요동은 “한국 고대사의 고향”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학계는 통상 만주라고 불리는 오늘날 중국 동북지역의 다양한 고고학 문화들 속에서 한민족의 원류를 찾으려는 학술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한민족의 최초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고조선의 중심지와 그 변천을 추적하는 연구나 부여、고구려、발해 관련 연구들은 모두 만주를 지역적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고, 다양한 연구 방법론과 주제들이 개발되며, 역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확장된 역사 인식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의 한국과 중국 고대사학계는 그간 각자의 시각과 방법론으로 고대 만주 지역을 연구해왔습니다. 이제 두 학회는 만주지역을 둘러싼 고대사의 연구 방향을 재검토할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제기된 만주 지역 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반추하고 새로운 시각까지 더하여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역사인식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본 학술회의를 통해서 한국의 고대사 연구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2017년 6월

중국고중세사학회 회장 심 재 훈

일정표

시 간		발 표 및 내 용	비 고
제 1 부 발표	10:00~10:20	개 회 사 : 심재훈 (중국고중세사학회 회장) 하일식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사회: 최재영 (한림대)
	10:20~10:50	제1 발표 :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 공간인식 비교** 발표자: 여호규 (한국외대)	
	10:50~11:20	제2 발표 : **요동사와 그 이후: 참여자와 관찰자의 시각** 발표자: 심재훈 (단국대)	
	11:20~11:50	제3 발표 : **중국 고대 문헌자료의 고조선 기사에 대한 이해** 발표자: 김정열 (숭실대)	
	11:50~14:00	**점심 식사**	
제 2 부 발표	14:00~14:30	제4 발표 : **만주지역 지방지에 나타난 한국고대사 인식** 발표자: 조법종 (우석대)	사회: 박대재 (고려대)
	14:30~15:00	제5 발표 : **고대 ‘중국’과 ‘요동’,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자: 방향숙 (서강대)	
	15:00~15:30	제6 발표 : **완충지대로서의 요동을 통해 본 신라·발해·당의 관계** 발표자: 김종복 (안동대)	
	15:30~15:50	**휴 식**	
제 3 부 종합 토론	15:50~18:00	토론자 : 제1토론: 최진열 (서울대) 제2토론: 공석구 (한밭대) 제3토론: 박준형 (연세대) 제4토론: 정 면 (서강대) 제5토론: 윤용구 (인천도시개발공사) 제6토론: 정병준 (동국대)	사회: 김병준 (서울대)